

사회

친구 구하고 숨진 '50대의 우정'

광주 남구 이장동 ... 지게차에 깔린 죽마고우 구출 살신성인

50대 남성이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한 50년 지기 친구를 구해낸 뒤 자신은 숨졌다.

1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같은 고향에서 농사짓는 친구를 도와주며 생계를 꾸려가던 김모(57)씨. 젊은 시절 트랙 운전기사로 일하기도 했던 김씨는 5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 최근 건강이 악화됐지만 죽마고우 이모(57)씨가 있어 외롭지 않았다.

지난 8일 오후 6시께 어느 때처럼 고향 광주시 남구 이장동 이씨의 비닐하우스 근처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김씨는 "농로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팔레트를 옮기는 중인데, 지게차 한쪽 바퀴가 논으로 빠져 떨어질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다급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어렵게 생활하던 자신을 위해 말동무가 돼주

**"도와달라" 전화에 트랙터 몰고 달려와
혼신 다해 구조한 뒤 꼭 껴안고 쓰러져
구조된 뒤 이름 불러도 끝내 대답 없어**

기도 하고, 가끔 생활비를 건네기도 했던 친구 이씨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전화를 받은 김씨는 부랴부랴 콤포바인을 운전해 20m 가량 떨어져 있던 이씨의 지게차 근처로 갔다. 현장에 도착한 김씨는 지게차에 타고 경사진 농로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타고 온 콤포바인과 지게

차를 밧줄로 연결한 뒤 지게차를 끌어 올리려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이씨가 타고 있던 지게차가 갑자기 무게중심을 잃고 논으로 추락해 이씨의 머리와 목을 누르기가 시작했다. 당황한 이씨는 황급히 농장으로 달려가 이씨에는 트랙터를 몰고 사고 현장에 되돌아왔다.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는 이씨의 모습을 본 김씨의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된

상태였다. 트랙터로 친구의 머리를 누르고 있던 지게차를 간신히 들어올린 김씨. 김씨는 의식이 없던 이씨를 구한 뒤 자신도 정신을 잃어 쓰러졌다. 그리고는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이날 오후 7시께 의식을 되찾은 이씨는 경찰에서 "정신을 차리고보니 김씨가 나를 마지막까지 꼭 껴안고 있었지만 숨을 쉬지 않았다. 차가워진 친구의 몸을 흔들며 계속 이름을 불렀지만 끝내 알아듣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숨진 김씨를 검안한 의사는 "지병을 앓던 김씨가 위험에 처한 친구를 살려낸 뒤 몸의 힘이 모두 빠져지면서 들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前 여수시의원 구속

도의원 등 현직 2명은 영장 기각

'오현섭 뇌물' 받은 혐의

경찰이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부적절한 돈을 받은 전직 여수시의원을 구속하면서 전·현직 시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수경찰은 9일 오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 여수시의원 유모(55)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말과 지난 5월께 오전 시장의 측근인 주모(67·구속)씨 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시의원 김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영기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영장이 기각된 의원 2

명에 대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유씨와 현직 시·도의원 5명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전남도의원 서모(57)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열렸다.

경찰은 이들 6명 외에도 금품 수수 정황이 포착된 전·현직 시의원들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혐의가 명백히 확인되면 모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야간경관조명사업'과 관련해 오전 시장 측으로부터 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시의원 16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또 '이순신광장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시의원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오현섭 비리'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김윤수 전 현대미술관장 해임무효 승소

대법원 3부(주심 박시훈 대법관)는 9일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해임조치가 부당하므로 미지급 급여 8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관장은 임기를 10개월 가량 남겨놓은 2009년 9월 마르셀 뒤샹의 미술작품인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가격 결정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재판 도중 채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미지급 급여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해임 사유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미술 작품을 구입하면서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모자 공짜로 주겠다" 100명 유인 택배비 천만원 가로채

북부경찰, 10대 등 빛 검거

택배비만 주변 중고물품을 공짜로 보내주겠다고 100명으로부터 택배비를 받아 가로챈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9일 박모(19)군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지난 7월 29일 오후 5시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A모텔에서 생활하면서 인터넷 중

고 물품 매매사이트에 "내가 사용한 모자인데, 택배비 2500원만 주변 무료로 보내주겠다"는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여·24)씨 등 100명으로부터 택배비 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소액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잘 하지 않은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9일 시민들이 작가로 참여하는 '2010광주비엔날레 만인보+1'의 개막식이 광주 전남대 치과병원에서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5개 팀이 참여해 광주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만취 부녀자 성폭행 미수 40대 영장

동부경찰, 강간치상혐의

광주동부경찰은 9일 만취한 부녀자를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정모(42·광주시 남구 월산동)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일 새

벽 2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골목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김모(여·42·광주시 동구 학동)씨를 차량으로 유인, 강간하려 했으나 김씨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전치 2주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주식투자 1억 빛 ... 30대 목매 숨져

지난 8일 오후 6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모텔 10층 객실에 김모(31)씨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모텔 종업원(33)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종업원은 경찰에서 "이틀 전에 투숙한 김씨가 객실을 비우지 않아 비상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과일도매업을 하던 김씨가 최근 주식투자로 1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괴로워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신정환 '필리핀 도박 억류'?

"여행 중 텡기열 걸려 병원 생활" 주장

잇따라 방송을 펴크내면서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이 9일 자신의 팬 카페에 사진과 글을 올려 '도박 억류설'을 부인했다.

신정환은 이날 팬 카페 '아이리스'에 눈을 감은 채 병원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여행 중 텡기열에 걸려 병원에서 계속 지내왔다"고 적었다.

신정환은 "약기운 때문인지 고열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병실에 누워 하루에 15시간씩은 자는 듯하다"며 "도착해서 며칠 일행

들과 카지노에 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 곳에 있었고 그 후 여행 중 텡기열에 걸려 병원에서 계속 지내왔다"고 설명했다.

신정환은 지난 5일 진행된 MBC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과 6일 KBS '스타 골든벨 1학년 1반', 7일 MBC '꽃다발', 8일 MBC '황금어장'의 녹화를 잇따라 펴크내 물의를 빚었고 이에 도박으로 인해 필리핀 현지에서 억류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연합뉴스

납골당 담보 3억짜리 빌라 '꿀깍'

주부 등친 50대 구속

교회 명의 신축 사기

광주동부경찰은 9일 납골당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50대 주부 소유의 빌라 2동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잠적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5년 3월 담양군 대덕면 문화리의 한 야산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다 부도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12월 22일 지인의 소개로 임모(여·52)씨로부터 405기의 봉안증서를 담보로 영광군 범성

면 진내리에 있는 시가 3억5500만원의 빌라 2동을 넘겨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종교법인은 납골당 허가가 상대적으로 쉽게 난다는 점을 알고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S교회 목사 L씨 명의로 납골당 신축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S교회는 납골당 건설 인부들이 3억7000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받지 못해 항의방문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임씨는 박씨가 부도 위기에 처해 매매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하자 지난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도박꾼 도망가고 구경꾼만 잡혔네

○"광주천변에서 윗놀이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정작 도박 당사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주변에서 도박을 구경하던 50대 취객만이 붙잡혀 도박방조 혐의로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임모(51·광주시 남구 백운동)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수기동 천교 아래에서 윗놀이 도박을 하는 남자 4명에게 막걸리 값 3만원씩 12만원을 건여 막걸리를 사다주는 등 도박행위를 방조했다는 것.

○"경찰이 탄 순찰차가 멀리서 보이자 도박을 하던 이들은 모두 달아났으나 술에 취한 이씨는 그대로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이씨는 "모두 모르는 사람이며, 사람들은 1판 밖에 안했다"며 횡설수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차 10월 1일 2차 10월 4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234-0234 직영 김영면입학원 227-8088